

# '오징어 게임', 에미 시상식서 6관왕

## 비영어작품 최초 후보·수상 역사 써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에미(E Emmy) 시상식에서 감독상·남우주연상 등 6관왕에 올랐다. 영어가 아닌 언어로 만들어진 드라마가 이 시상식 후보에 오른 것도 상을 받은 것도 모두 처음이다.

'오징어 게임'은 12일(현지 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마이크로소프트시어터에서 열린 제74회 프라임타임 에미 시상식(Primetime Emmy Awards)에서 황동혁 감독이 드라마 시리즈 부문 감독상을, 배우 이정재가 같은 부문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오징어 게임'은 지난 4일 열린 프라임타임 크리에이티브 아트 에미 시상식에서 배우 이우미가 받은 여우주연상을 포함해 특수효과·스턴트퍼포먼스·미술상을 더해 총 6관왕에 올랐다.

영어가 아닌 언어로, 영미권이 아닌 지역에서 만들어진 드라마가 후보로 지명되고 상을 받은 건 에미 74년 역사상 '오징어 게임'이 최초다. 미국 텔레비전예술과학아카데미(The Academy of Television Arts & Sciences·ATAS)가 주최하는 에미 시상식은 'TV 아카데미'로 불릴 정도로 최고 권위를 자랑한다.

황 감독은 아시아 감독 최초로 에미에서 감독상을 받아내는 역사를 썼다. 앞서 2016년 인도계 미국인 감독 겸 배우 아지즈 안사리가 '마스터 오브 논'으로 아시아계 감독 최초로 감독상 후보에 오른 적은 있으나 수상하지는 못했다. 황 감독은 "사람들은 내가 역사를 썼다고 하지만 우리가 함께 역사를 쓴 것"이라며 "영어가 아닌 언어로 만들어진 작품이 에미에서 상을 받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점으로 돌아오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재 역시 아시아 국적 배우 최초로 에미에서 연기상을 받은 배우가 됐다. 앞서 2010년 아지드 칸자라가 '굿 와이프'로 아시아계 배우 최초로 드라마 시리즈 부문 여우조연상을, 2017년 리즈 아베드가 '나이트 오브 리미티



①배우 이정재가 12일(현지시간) LA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열린 제74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오징어게임'으로 남우주연상을 받고 소감을 말하고 있다. ②오징어게임의 황동혁 감독이 감독상을 받고 소감을 말하고 있다. 황동혁 감독은 비영어권에서 최초로 감독상을 받았다.



## 황동혁 감독상·이정재 남우주연상 수상 '쾌거' 여우단역·특수효과·미술·스턴트부문도 수상

드 시리즈 부문 남우주연상을, 대런 크리스가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로 다음 해 같은 부문에서 수상한 적이 있던 하다. 다만 관자머리는 인도계 영국인, 아메드는 파키스탄계 영국인이고, 크리스는 필리핀계 미국인이다. 영어가 아닌 언어를 모국어로 쓰는 배우가 에미 주요 부문에서 수상한 건 이정재가 최초다. 이정재는 무대에 올라 영어로 "에미 축하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팀에 감사하다"고 했다.

이정재와 함께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정호연, 남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오영수와 박혜수는 수상하지 못했다. 또 '오징어 게임'은 작품상 후보로 이름을 올렸으나 수상에 실패했다. 시상식 중엔 '오징어 게임'을 위한 특별 무대가 열리기도 했다. 이정재와 정호연이 버라이어티 스케치 부문 작품상 시상을 위해 무대에 올랐을 때, 무대 한 쪽에는 극 중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에 등장하는 영희 인형이 들어섰다. 이를 본 이정재와 정호연은 마치 드라마에서 그랬던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잠시 멈춰서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뉴시스

## '116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구속

###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있어' 30년 동안 출연료 등 횡령

방송인 박수홍씨가 벌어들인 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 30년 동안 116억에 달하는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수홍씨는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박수홍씨는 지난해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박수홍씨는 이후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박씨 부부가 자신의 개인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렸다. /뉴시스

## 나상현씨밴드, '멘탈코치 제갈길' OST 참여... 어제 '직진' 발매

tVN 새 월화드라마 '멘탈코치 제갈길'이 13일 오후 12시 첫 번째 OST '직진'을 발매했다. '직진'은 '멘탈코치 제갈길'의 방송 전 공개된 예고편에 삽입된 첫 OST로 리드미컬한 기타 리프와 시원한 개러지 록 사운드가 특징이다. 세상에 편견에 맞서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메시지를 담은 곡이다. 종독성 강한 후렴과 스포티한 연주가 '스포츠 활극'의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 해당 곡은 앞서 유미의 세포들 시즌2, '멜랑콜리아', '오피스에서 워하Share' 등 tVN 드라마 OST 주지에 나섰던 나상현씨밴드가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했다. '멘탈코치 제갈길'은 사고를 치고 운동을 그만둔 운동선수 출신 멘탈코치 제갈길(정우 분)이 선수들을 슬럼프에서 구출하며 펼쳐지는 스포츠 드라마다. /뉴시스

## K-콘텐츠 '한계는 없다'... 미국·유럽 모두 합력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올해 에미 시상식에서 6관왕에 오르면서 한국 영화·드라마는 전 세계 콘텐츠 중심이라는 미국과 유럽 주요 시상식에서 모두 상을 받아내는 진기록을 쓰게 됐다.

특히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과 골든글로브 시상식, 에미 시상식을 최근 3년 내에 모두 무너뜨리는 데 성공한 첫 번째 나라가 됐다.

우선 배우 이정재가 제74회 프라임타임 에미 시상식(Primetime Emmy Awards)에서 드라마 부문 남우주연상을 받음으로써 한국 배우들은 미국의 영화·드라마 주요 시상식은 물론이고, 세계 3대 영화제를 석권하는 데 성공했다. 3대 영화제 중 최고로 꼽히는 칸 국제영화제에선 2007년 전도연이 여우주연상을 올해 송강호가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선 2017년에 김민희가 여우주연상을 차지했고,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에선 1987년 강수연이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 '오징어 게임' 에미 6관왕 새 역사 K-콘텐츠, 아카데미·골든글로브 등 연출·연기 모두서 수상 성공 유일 유럽 3대 영화제 연출·연기상 휩쓸어 아시아 유일 기록 K-콘텐츠 전성기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연기상을 모두 받은 나라는 아시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 영화·드라마 시상식 중 가장 높은 권위를 인정받는 행사는 아카데미와 골든글로브 그리고 에미 시상식이다. 한국 배우들은 이 3개 시상식에서도 모두 연기상을 받는 데 성공했다. 아카데미에선 지난해 윤여정이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올해 초 골든글로브에서는 오영수가 남우조연상을 차지했다. 그리고 이정재가 에미에서 남우주연상을 들어올렸다. 이 3개 시상식에서 모두 연기상을 받은 나라 역시 아시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세 배우 모두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연기를 하고

도 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 배우들 뿐만 아니라 한국 감독들도 유럽의 칸·베를린·베네치아, 미국의 아카데미·골든글로브·에미에서 모두 상을 받아냈다. 칸에서는 봉준호 감독이 2019년 황금종려상을, 박찬욱 감독은 2005년 심사위원대상과 올해 감독상을 받았다. 임권택 감독은 2002년 감독상을 받았다. 베를린에서는 홍상수 감독이 올해 심사위원대상을, 지난해 각본상을 받았다. 이에 앞서 김기덕 감독이 2004년에 감독상을 차지한 적이 있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선 봉준호 감독이 작품·감독·각본상을,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도 역시 봉 감독이 감독·외국어영화상을 받았다. 에미에서는 올해 황동혁 감독이 감독상을 차지했다. 봉준호·황동혁 감독 모두 아시아 감독 최초 수상이었다. /뉴시스

온가족이 함께 하는 즐거운 하모니

## 제6회 전라북도 아리울 어버이 합창제

2022년 9월 17일(토) 오후 4시~

### 전주 바울교회 2층 그레이스홀

주최: (사)전북문화진흥원, 전주매일신문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

\*\*본 행사는 전라북도, 전주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합니다.